



‘국제중 가려면 조문영처럼 공부하라’ 책 펴낸 광주 송의중 조문영양

“목표 없이는 결실 없어... 꿈꾸는 자에 희망 있죠”

수익금 전액 아동보육시설 기부

“제가 국제중 입학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참고할만한 책 하나 없어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 국제중 입학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어요”

순수 국내파로 지난해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에 합격, 관심을 모았던 (광주일보 2008년 11월 22일자 보도) 조문영(13)양이 국제중 합격의 비법을 담은 책 ‘국제중 가려면 조문영처럼 공부하라’(심미안 펴냄)를 발간해 화제다.

특히 조 양과 가족들은 책 출판 관련 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에 기부하기로 해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번 조 양인 펴낸 책은 청심국제중학교의 합격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 초등학교 시절의 학습 다이어리, 영어와 중국어 등의 어학 공부, 독서 체험, 예체능과 봉사 활동,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학습과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조 양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날렸다. 초등학교 재학 중 토익 885점을 달성하고, 전국 영어, 수학 경시대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영재로 선정되어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우수한 성격과 활발한 대의 활동으로 얻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급 임원을 도맡았으며 4학년 때 전교부회장, 6학년 때는 전교학생회장을 맡았으며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조 양이 청심국제중학교에 지원한 것은 대법원장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 전국의 내로라하는 영재들이 모이는 청심국제중학교는

지난 2005년 국내 유일의 사립 특수목적중학교로 개교한 국제중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신망’의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서류전형으로 입학정원의 4배수를 가리고, 영어면접과 개인면접 등 2박3일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조 양은 이 과정에서 22.6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심국제중학교에 합격한 것이다.

조 양은 책의 내용과 관련 국제중을 준비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썼다고 말한다.

조 양은 또 국제중에 입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목표가 세워지면 집짓기 하듯 주춧돌을 놓고 축대를 세우고, 정성껏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잖아요.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고 조언한다.

조 양에게 기본고 행복만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 양은 올해 초 달콤했던 국제중 생활을 접어야 했다. 입시를 준비하며 급격히 악화된 건강 때문에 광주로 내려와야만 했다. 현재는 광주 송의중으로 전학해 1학년이 재학중이다.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허탈감과 실망감이 컸을 법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 양의 열정은 여전히 당차고 뜨거웠다.

조 양은 “후회는 없어요. 제 목표인 서울대 경영대와 로스쿨 입학,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이곳 광주에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그리웠던 부모님과 지낼 수 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으니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라고 수줍게 웃어보였다.

조 양은 또 “아무췌록 책이 많이 팔려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심미안〉출판사 제공

원더걸스, 美 추신수 경기서 시구

여성그룹 원더걸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원더걸스의 선에는 7일(한국시간) 추신수가 뛰고 있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를 찾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전 시구를 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유니폼 상의를 입고 마운드에 선 선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올린 뒤 공을 힘차게 던져 박수를 받았다.

멤버들은 경기 시작 전 추신수 선수와 동료를 만나 히트곡 ‘노바디’ 춤을 함께 추기도 했다. 또 팬사인회와 공연도 펼쳤다.

원더걸스는 “추신수 선수가 경기 전 우리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직접 노래를 들려드리고 응원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수정 태국 단편영화 ‘푸켓’ 여주인공 맡아

배우 임수정이 태국 아닷컴 아사랏 감독의 단편 영화 ‘푸켓’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소속사인 iHQ가 7일 밝혔다. 영화는 한국의 젊은 여배우와 태국의 중년 호텔리 무진기사의 우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임수정은 한국의 여배우 진 역을 맡아 태국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소라퐁 차리와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

아닷컴 아사랏 감독은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원더풀 타운’으로 뉴커런츠 상을 받아 주목받은 감독이다. 이번 영화 역시 내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 블러드굿,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뵈다

한국관광공사는 7일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인 문 블러드굿(Moon Bloodgood)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2004년 영화 ‘내 생애 최고의 데이트’로 데뷔한 문 블러드굿은 지난 5월 블러드굿스터 ‘타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미국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의 ‘가장 아름다운 할리우드 미녀 스타 4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 블러드굿은 최근 일본 소니(Sony)로부터 약 1백만 달러에 인터넷 미니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해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 신형섭 구미팀장은 “앞으로 미주지역의 관측 행사에서 문 블러드굿을 앞세운 스타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며 “미국 시장에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상증자 참여 양수경·견미리 주식 대박

배용준 170억원 연예인 주식 부자 1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 연예인들이 주가가 급등하며 역대 주식 부자로 등장했다.

7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가치를 4월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수 출신인 양수경씨의 예당엔터테인먼트 지분 가치가 54억6천만원을 기록하며 연예인 주식 부자 3위에 올랐다.

텔런트 출신 연예인 견미리씨도 지난 7월 FCB투벨브(옛 로이)의 유상증자에서 5만5000여주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주식 가치가 45억9천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견씨와 함께 FCB투벨브의 유상증자에 1억원을 투자해 6천100여주의 주식을 취득한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현)씨도 평가액이 5억1천만원에 달해 8위를 기록했다.

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이 1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한류스타’ 배용준씨는 170억6천만원의 기록, 최고 연예인 주식 부자에



견미리 배용준

올랐다. 키이스트 지분 34.6%를 보유하고 있는 배씨의 지분가치는 올해 들어 키이스트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초보다 43.4% 불어났다.

배씨에 이어 가수 출신 연예계 기획자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는 주식지분 가치가 143억2천만원으로 평가돼 연예인 주식부자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제이투엔터테인먼트 지분 8.04%를 보유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 41억6천만원), 디조콜라의 지분을 보유한 MC 신동엽씨(14억6천만원), 강호동씨(13억9천만원), 가수 윤종신씨(3억8천만원) 등이 역대 연예인 주식 부자에 들었다. /연합뉴스



민속학자 故 지춘상 박사 학덕비 제막

민속학자 지춘상(池春相) 박사 학덕비 제막식이 5일 오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고인의 선영에서 있었다.

남도민속학회(회장 나승만), 한국민속학회(회장 나경수), 그리고 광주민속박물관(회장 김계운)가 주관한 이날 제막식에서는 생전 한국민속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오석에 새긴 2개의 비석이 세워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 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김포천 임방울국악재단 이사장과 손광은, 범대순, 문형만 씨 등 전 전남대교수와 미망인 김용서 전남대 명예교수, 유족, 제자 등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故 장진영 부친, 장진영 모교에 장학금

지난 1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장진영의 아버지가 장진영의 모교인 전주 중앙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진영의 전 소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7일 “고인이 지난 7월 중순께 중앙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해 줄 것을 자신의 아버지께 부탁했다”며 “이에 따라 아

버님께서 장례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빈소를 찾아온 중앙여고 관계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진영은 2006년 전주시에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해마다 기부활동을 펼쳐왔다고 소속사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영화진흥위원장 조희문씨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공석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조희문(52)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지난 7월 사표가 수리된 강한섭 전 위원장의 잔여 기간인 2011년 5월 27일까지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한 영진위 비상임위원 6명의 후임자도 조만간 위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철호 목포대 교수

인명사전 2곳 동시 등재

윤철호 목포대(경영학 전공)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판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세계 100대 공학자(Top 100 Engineers, 2009)에 동시에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천병권(호남대 교수)씨 장남 준호군 정촌길씨 사내 선영양=12일(토) 오후 1시30분 삼부지구 예술의전당 3층(토포즈홀)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이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김태규씨 장남 진(호산 전남대병원)군 양화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호산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드 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9회 동창회(회장 장무성) 월례회=9일(수) 오후 6시30분 해태식당. 062-525-7393.

송원고 제11회 동창회(회장 황명성) 월례회=11일(금) 오후 7시 낙지안마당. 062-381-5559.

종친회

▲한국범죄학대중연합회(회장 최기후) 9월 정기월례회=11일(금)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오후 6시 30분. 062-236-3220, 017-603-643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09 자원봉사 정책토론회=긴급지원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연계방안 모색, 10일(목)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

동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맘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광주-전남 생태기능학교 학생모집=9월15일~11월5일(매주 화·목 오후 7시~9시) 광주 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373-6183.

▲전동주 과일주(와인) 제조부수 강생 모집=9일(수)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매주 수요일)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문해 한글과점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원불교 문화센터 3기 회원 모집(9월 1일 개강)=서예(월, 수 오전 10시), 요가(월, 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독서논술지도(목, 오전 10시 30분),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화 오전 10시), 수심결 강의(수 저녁 7시 30분)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268-5588, 011-

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다이어트 계모임 회원 모집=월 2회 모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35~55세 일과·사무·문호·봉신·철단지구 선착순 6명. 010-2425-440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감사·시인·아동문학·심리상담

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방공례씨 별세 안시옥·시중·시구·시오·동남·이남·송남씨 모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박공례씨 별세 송지연·수연씨 모친상=발인 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최병영씨 별세 정규씨 부친상=발인 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창호씨 별세 한석·한수·한정·한민·한영·한필·영숙·명은씨 부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주의준씨 별세 석노·학노·민노·연자·연순·연숙씨 부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박공례씨 별세 안시옥·시중·시구·시오·동남·이남·송남씨 모친상=발인 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박안순씨 별세 유성열·정주·창진·송암·정만·정화·정옥씨 모친상=발인 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선진국형 정혜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1566-4499